



## ■ 연구원 주요일정

- 03월 06일(月) : 주간회의(11시), 효천지구 마을지 사업 스텝회의(13시)
- 03월 08일(水) : 연구원 야간강좌

## ■ 연구원 소식

### ○ 46회 문화강좌 안내

- 날짜 : 2017.03.25(土) 16시
- 장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 강사 : 나종화 회원
- 주제 : 여행학개론

### ○ 한국고전학연구소·연구원, 호남인물·전북의병장 사료읽기 야간 강좌 안내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야간강좌는 매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강의는 김건우 이사(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한지산업관 202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3·1절인 관계로 휴강하였습니다. 3월 8일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강독 교재로는 『호남의사열전』을 강독할 예정입니다. 전주대학교가 개강한 관계로 오후 4시에서 6시 30분으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야간 강좌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20분까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 도서출판 기억과 협약체결(2월 27일)

: 2월 27일에 우리 연구원과 도서출판 기억(대표 윤지용), 양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후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약속하였습니다.



### ○ 광주·전남 회원모임 실시(2월 28일)

: 2월 28일에 광주·전남에 계시는 회원들을 모시고 2017년 사업을 공유하고 새해 다짐을 나누는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에는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시는 회원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려 달려온 세분의 회원도 계셨습니다. 서울경기, 전북 뿐 아니라 광주전남에서도 향후 지역차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어 광주·전남지역 모임의 회장으로 유선종 회원, 총무로 구순식 회원을 선출하여 지속적인 모임을 이어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2차 운영위원회 실시(3월 3일)

- 날짜 : 2017.03.03(金) 오후 5시
- 장소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의실
- 안건 : 연구원 법인차량 구매 건, 광복회 공동사업 관련의 건
- 내용 : 2017년 2차 운영위원회가 3월 3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새롭게 선임된 운영위원 세분이 참석하여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정기이사회에서 승인된 법인차량 운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어 광복회 공동사업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장소를 옮겨 전임 한명수 운영위원과 함께 뒷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위원들과 함께 시작한 운영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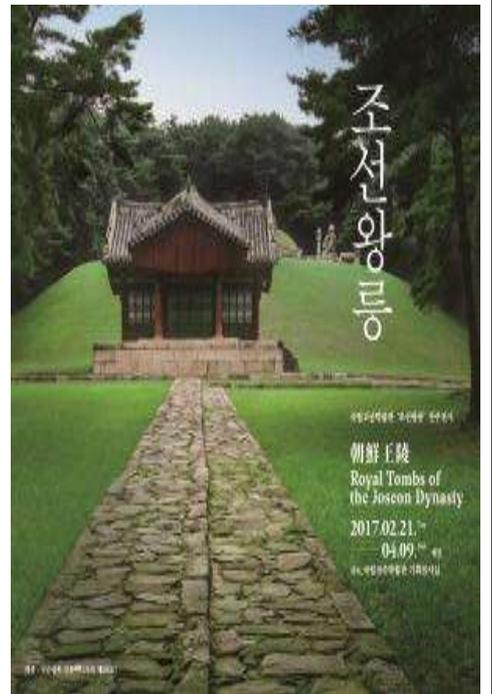
○ 연구원 신규회원 가입

: 지난 주에도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우리 연구원과 협약한 도서출판 기억의 윤지용 대표입니다. 전주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더 열정적인 연구원 활동을 약속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모아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 국립전주박물관 왕릉전시

: 국립고궁박물관의 2016년 상반기 특별전을 2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의 왕실문화와 통치철학, 국가이념의 결정체인 조선왕릉의 다양한 유물, 자료와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 왕릉에 속하지는 않지만 전주에 남아있는 태조의 시조 이한과 부인 경주 김씨의 위패를 모신 조경묘, 이한의 묘역으로 전해지는 조경단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 기간 : 2017.02.21.(화)~04.09(일)
- ◆ 장소 :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 품

留別王侍御維(류별왕시어유) 왕유에게 헤어지며 남긴 시

寂寂竟何待(적적경하대)	허망한 신세가 끝내 무얼 기다릴까?
朝朝空自歸(조조공자귀)	아침이면 아침마다 하릴없이 홀로 돌아오는데
欲尋芳草去(욕심방초거)	향긋한 풀 찾아 떠나려함에
惜與故人違(석여고인위)	옛 벗과 헤어짐이 애석하여라.
當路誰相假(당로수상가)	권력자들 중에 누가 나를 끌어주었던가?
知音世所稀(지음세소희)	진정 나를 알아주는 친구 세상에는 드무나니
祇應守寂寞(지응수적막)	다만 적망한 산천이나 지키고자,
還掩故園扉(환엄고원비)	고향으로 돌아가 사립문을 닫으려 하네.

## ■ 작자소개

- 맹호연(孟浩然, 689-740). 중국 당나라의 시인이다. 이름은 호이며, 자는 호연이며 호(號)는 녹문거사(鹿門處士)이다. 양양(襄陽) 사람으로 절개와 의리를 존중하였다. 한때 녹문산(鹿門山)에 숨어 살면서 시 짓는 일을 매우 즐겼다. 40세 때 장안(지금의 시안)에 나가 시로써 이름을 날리고, 왕유·장구령 등과 사귀었다. 그의 시는 왕유의 시풍과 비슷하며, 도연명의 영향을 받아 5언시에 뛰어났다. 격조 높은 시로 산수의 아름다움을 읊어 왕유와 함께 '산수 시인의 대표자'로 불린다. 맹양양(孟襄陽)으로도 불리며 저서에 '맹호연집' 4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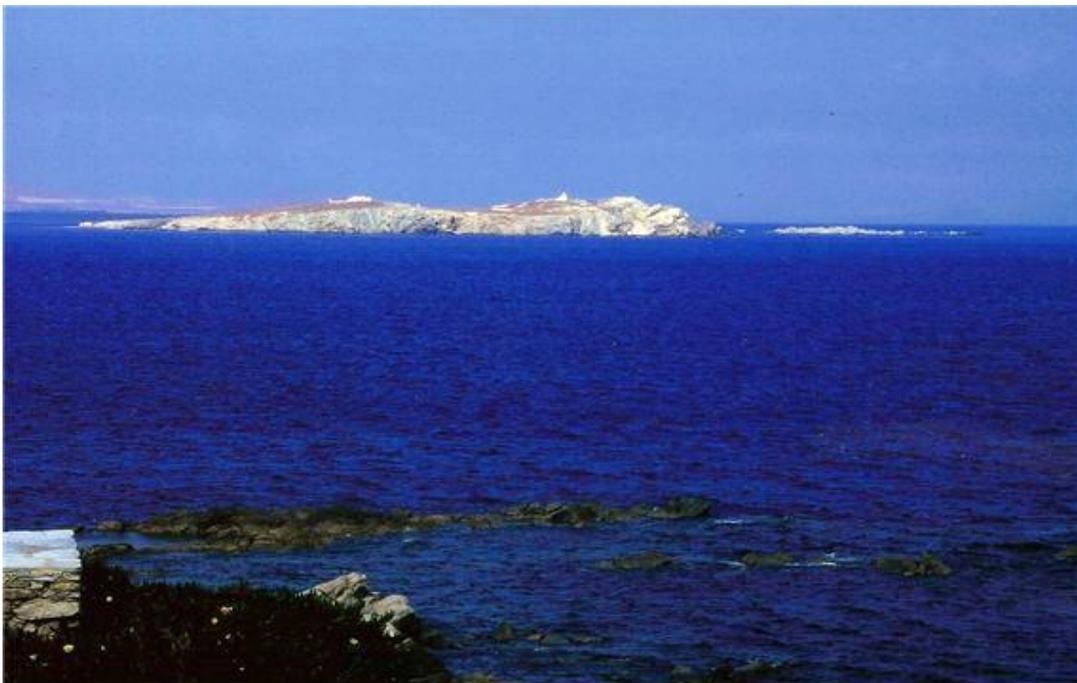
## ■ 감 상

- 이 시는 맹호연이 왕유와 작별하며 지은 것이다. 당시의 권세가들에 대한 원망과 친구와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을 담고 있다. 당시 그는 뒤늦게 나이 마흔이 되어 장안으로 나가 벼슬길을 찾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다시 귀향해야 하는 처지였다. 제1~2구는 불행한 장안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3~4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와의 이별이 아쉬워 망설이게 되는 모순된 심리를 드러냈다. 제5~6구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권세가들과 세상에 대한 원망을 토로했다. 제7~8구는 엄비(掩扉) 등의 표현을 통해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을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의 이런 결의는 세상에 대한 원망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 ■ 발로 쓰는 유럽 풍경

이번 호 뉴스레터부터 격주로 우리 연구원 전임연구원인 김천식 박사의 “발로 쓰는 유럽 풍경”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김천식 박사는 <마티 잉골드의 선교활동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전주대 대학원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기독교사 뿐 아니라 문화와 철학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꾸준히 연구하고 계시며 올해부터 연구원 소모임으로 종교문화유적 답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연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푸른 에게해와 밧모섬(Patmos)



<푸른 에게해>

세계 모든 곳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그리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평소 신화의 진원지이고 유럽 문명의 태동과 관련된 나라이기에 그곳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 드디어 2005년 아테네에 첫 발을 디뎠고 그 후 2010년, 2011년 이렇게 3차례에 걸쳐 신비의 세계를 돌아볼 수 있었다.

첫 번 여행은 지중해를 건너가고 싶어서 터키에서 아테네까지 배편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에베소 쿠사다시 항에서 사모스 섬으로 가는 배표를 끊게 되었는데, 직원이 여권을 달라고 한다. 1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곳인데 무슨 여권 조사냐? 했더니 사모스는 그리스의 섬이라고 대답한다. 수속을 마치고 승선하니 배는 뱃고동을 크게 울리며 출발하였다. 얘기 들은 대로 한 시간이 채 안 걸려 사모스 항구에 입항하였다.

우리네 상식으로 납득이 되질 않는다. 사모스는 터키에서 1시간 거리인 반면 아테네에서 사모스는 대략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이다. 그런데 사모스 섬이 그리스에 속해 있다니-. 국제 사회에서 국경이 반드시 거리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새삼 우리나라 독도가 떠올랐다. 한 때는 단순한 생각으로 옛날부터 우리나라 땅이었고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가시적인 거리에 있는데, 누가 뭐래도 우리 땅이지 하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거리가 가깝다는 사실만으로는 교묘한 일본과의 다툼에서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가진 역사적 근거를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한 방법으로 국제사회에 나서야 문제해결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로 향했다.

먼저 기독교 유적지라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의 유배지 밧모섬(Patmos)에 들렀다. 그 옛날 요한이 끌려 다녔던 옛길을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길을 알려 주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지만 그 길은 2천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변형되지 않고 있었으며, 돌길이었다. 사도 요한이 노구를 이끌고 오르기에는 힘들었을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알 수 없는 묘한 기운을 느꼈다.



<사도 요한이 걸었던 길과 성요한 수도원>

산 정상에는 수도원에 있고 산중턱에는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동굴이 보존되어 있어서 당시를 상상해 볼 수 있었다.

## ■ 역사속의 오늘

### ○ 우리들의 죽음 - 1990년 3월 9일

1990년 3월9일, 서울 망원동 연립주택 지하방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아버지는 경비원,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나갔고 방엔 혜영(5살), 영철(4살) 남매만 있었다. 집주인은 아이들이 집에 있는 줄 모르고 있었으며 집에 불이 났다고 남매의 엄마에게 연락했다. 맨발로 달려온 엄마가 자물쇠로 잠긴 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은 손톱으로 문을 긁어대다 옷더미에 얼굴을 감싼 채 숨을 놓고 쓰러져 있었다. 남매의 사연은 가수 정태춘이 부른 "우리들의 죽음"으로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다.

맞벌이 영세 서민 부부가 방문을 잠그고 일을 나간 사이, 지하셋방에서 불이나 방 안에서 놀던 어린 자녀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질식사 숨졌다.

불이 났을 때 아버지 권씨는 경기도 부천의 직장으로 어머니 이씨는 합정동으로 파출부 일을 나가 있었으며, 아이들이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바깥 현관문도 잠가 둔 상태였다. 연락을 받은 이씨가 달려와 문을 열었을 때, 다섯 살 혜영양은 방바닥에 엎드린 채, 세살 영철군은 옷더미 속에 코를 붙은 채 숨져 있었다. 두 어린이가 숨진 방은 3평 크기로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와 비키니 옷장 등 가구류가 타다만 성냥과 함께 불에 그을려 있었다.

이들 부부는 충남 계룡면 금대2리에서 논 900평에 농사를 짓다가 가난에 못 이겨 지난 88년 서울로 올라왔으며, 지난해 10월 현재의 지하방을 전세 4백만원에 얻어 살아왔다. 어머니 이씨는 경찰에서 "평소 파출부로 나가면서 부엌에는 부엌칼과 연탄불이 있어 위험스럽고 밖으로 나가면 길을 잃거나 유괴라도 당할 것 같아 방문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평소 이씨는 아이들이 먹을 점심상과 요강을 준비해 놓고 나가 일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이 사는 주택에는 모두 6개의 지하방이 있으며, 각각 독립 구조로 돼 있다.

(정태춘 만들고 부른 우리들의 죽음)

남매가 살던 집에서 불과 300미터 떨어진 곳에 시립 '새마을 버들 유아원'이 있었지만 탁아시간이 오후 5시까지여서 맡길 수 없었다. 27년이 지난 오늘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반이라 하여도 27년 전에 비해 불과 2시간 연장된 보육시간일 뿐이다.

요사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가장 많이 활자와 음성으로 토해내는 말이 "법대로"인 듯하다. 법대로... 좋다. 이 얼마나 명쾌하고 옳은 명제인가.

"법대로 하면 되고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면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된다." 그런데 그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 지우는 세상은 지옥에 다름 아닐 것이다. 태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 이 옳고 명쾌한 명제는 사회가 책임져야 온당하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죽었어

그 때 엄마 아빠가 거기 함께 있었다면...

아니, 엄마만이라도 함께만 있었다면...

아니, 우리가 방 안의 연기와 불길 속에서 부동켜안고 떨기 전에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방문을 세차게 두드리기 전에

손톱에서 피가 나게 방바닥을 긁어대기 전에

그러다가 동생이 먼저 숨이 막혀 어푸러지기 전에

그 때 엄마, 아빠가 거기에 함께만 있었다면...

아니야, 우리가 어느 날 도망치듯 빠져나온 시골의 고향 마을에서도

우리 네 식구 단란하게 살아 갈 수만 있었다면...

아니, 여기가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내리는 그런 나라였다면...

아니, 여기가 엄마, 아빠도 주인인 그런 세상이었다면...

엄마, 아빠! 너무 슬퍼하지마

이건 엄마, 아빠의 잘못이 아냐

여기, 불에 그을린 옷자락의 작은 몸둥이, 몸둥이를 두고 떠나지만

엄마, 아빠! 우린 이제 천사가 되어 하늘 나라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천사들은 이렇게 슬픈 세상에는 다시 내려 올 수가 없어

언젠가 우린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나겠지

엄마, 아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가장 예쁜 말로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이제, 안녕... 안녕...

(정태춘 만들고 부른 우리들의 죽음)

혜영이와 영철이의 죽음으로부터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세상은 그날의 비극으로부터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가. 그와 같은 일은 더 이상 없는 것이며, 남매를 잃은 그 부모의 비탄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일까.

민인의 안녕보다 권력의 안위에 집중하는 오늘, 27년 전 그날보다 얼마나 우리는 전진해 있을까. '아이들의 죽음은 한 사회의 죽음이다.'는 말은 수사가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준엄한 진단일 것이다.

"우리들의 죽음" 이 비통하고도 준엄한 노래를 오늘 다시 부르는 이유는 27년 전보다 별반 나아진 것 없는 오늘 우리가 가야할 길을 엄중하게 바라봐야하기 때문이다.

1990년 정태춘이 만든 이 노래는

**"어떤 가정의 부주의가 우선된 불행한 사태를 굳이 이념적인 사회문제로 결부한 것은 대중가요로 부적당"**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사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비합법음반으로 제작되었다.

보호받지 못해 죽어간 수많은 어린 영혼들의 명복을 빈다.



간편하게 먹는 건강한 한끼  
구수함은 기본, 더 건강한  
**3가지맛** 누룽지

쌀 / 현미 / 보리



**김제평야의 질 좋은 쌀과 현미,보리로 만든 - 금싸락누룽지**

드넓은 김제평야에서 자란 간척지 햅쌀과 현미, 보리로 정성껏 만들기에  
더욱 고소한 맛과 함께 건강을 가득 담은 바삭하고 고소한 영양식입니다.

## ■ 금사락 누룽지 판매 가격

종류	규격	가격		비고
		정상가	할인가	
금사락 누룽지	150g*10봉	23,000	21,000	
	150g*20봉	44,000	42,000	
	200g*10봉	27,000	24,000	
	200g*20봉	52,000	48,000	
	3kg	33,000	30,000	
	750g*2봉	19,800	18,000	
	750g*4봉	39,600	36,000	
	750g*6봉	59,400	54,000	
금사락 현미 누룽지	150g*10봉	28,000	25,000	

※ 연구원 심범식 회원이 직접 생산하는 맛있는 누룽지입니다. 설 이후에도 연구원 회원 들께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택배비 : 3,000원(40,000원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